#### 다른그림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19일까지 동관 갤러리에서 강정주 작가의 전시회가 진행된다. '행복의 향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저마다 고유의 색과 향기를 가진 꽃의 생명력 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로 꾸며졌다. 사진은 7월 10일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내원객 모습.

####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전화번호: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동료와의 협업 사례

소속:

- 우리 부서 소식
  - 원내식당5만원이용권 고은정(응급간호팀) 장진기(대장항문외과)

## 아로마틱 핸드크림

최도희(수술간호팀)

이미지(임상시험센터) 이지연(심장검사팀 운동부하검사실)

#### 캔버스 북커버

김의영(수술간호팀) 김혜정(암병원간호2팀) 이다경(내과간호1팀) 정희연(진단검사의학팀)

## 달마이어 1만원 이용권





### ☑ 지난호 정답



제727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감사우체통 -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였습니다.

#### 이번 독자엽서는 암병원간호2팀 이소영 사원이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8월 1일(목) 발표 제731호(2024년 8월 15일 발간)

####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식당10만원이용권

정소영(병리팀)

강민서(진단검사의학팀) 김수지(심장검사팀) 김현경(영상의학팀) 장성혜(영상의학팀) 홍다혜(AGS팀)





# 서울아산병원

VOL.729 2024. 7. 15



## 여름철 에너지 절감 총력… ESG 경영 앞장서

최근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사용 량이 늘고 있다. 우리 병원은 냉각탑과 공조시

설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과 의료 폐기물 감소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 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ESG 위원회를 발족한 우리 병 원은 23개 주요 지표와 41개 세부목표를 수립해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투명 경영(G)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7월 3일 시설팀 김선진·이운기 선임기사, 손석민 대리가 열손실을 막기 위해 냉방 설비 배관을 정밀 점검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5면)

02 NEWS 3D프린팅 10년··· 맞춤형 의료기기로 혁신 선도

**08** AMC 리얼스토리 끝에서 바라본 시작

10 헬스에디터 고관절에서 나는 뚝뚝 소리, 괜찮을까?

14 컬처 & 라이프 생명에 맞춤형이 따로 있을까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NEWS** 2024. 7. 15 Vol.729

## 3D프린팅 10년··· 맞춤형 의료기기로 혁신 선도

환자 중심 치료 및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앞장서

우리 병원은 지난 10년간 3D프린팅 기술 로 맞춤형 의료기기를 개발해 의료진의 고난도 수술을 돕고 혁신적인 치료 방법 을 개발해왔다. 의료영상지능실현 연구 실(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은 2014년 연 구목적의 3D프린터 도입 후 다수의 진료 과와 협업하며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3D프린팅은 환자 맞춤형 시뮬레이터를 제작해 술기를 익히기 어려운 시술이나 처음 하는 수술의 시행착오를 줄였다. 난 치성 중증환자의 경우 치밀한 수술 계획 과 실행이 필요한데 3D프린팅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국내 첫 생

체폐이식(심장혈관흉부외과 박승일 교

수팀), 소아 복합기형 심장 수술(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 등 고난도 수술에서 미리 수술 계획을 세우거나 수술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활용됐다.

특히 최근 4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신장암 부분절제술에 맞춤 형 수술 가이드를 적용한 연구는 주목할 만한 성과다. 건강의 학과 경윤수 조교수팀은 기존의 신장암 수술 가이드 3D프린팅 출력물에 시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 작아진 출력물 이 지름 1cm인 복강경 포트를 지나 몸속으로 들어가면 원래의 모양이 원상복구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작아지는 성질 을 이용해 신장암 맞춤형 4D프린팅 수술 가이드를 제작했다.

▲안면재건 수술(성형외과 최종우 교수팀)에서 3D프린팅은 특 히 활용도가 높다. 암이나 외상으로 결손된 부위를 보완할 인 공 뼈를 출력해 화자에게 바로 식립할 수 있다. 최종우 교수팀 은 귀나 코 등의 결손부위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피부 질감, 색상 등을 고려한 얼굴 보형물(에피테제, Epithese) 연구 도 진행했다. ▲폐 절제 후 빈 공간이 생겨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 보형물 임플란트(심장혈관흉부외 과 김용희 교수·윤재광 조교수팀)를 개발하고 동물실험 중에 있으며 ▲이비인후과의 해부학적 구조를 출력해 의료진의 드



진료·연구·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3D프린팅 사례.

릴링 실습을 가능하게 만든 측두골 유양돌기 절제술 시뮬레이 터(이비인후과 정종우 교수팀)는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용성 평가를 수행한 논문이 출간됐다. ▲유방외과 고범석 교 수팀이 개발한 유방암 화자 수술 가이드는 혁신의료기술로 지 정됐으며 3D모델링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가상의 가이드를 만 들어 수술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성과는 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지정, 논문 게재나 학회 수상 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공 어깨관절 치 화술 의료용 가이드(정형외과 고경화 부교수팀), 안와골절 임 플란트 제작 가이드(안과 사호석 교수팀) 등 4건은 신의료기술 또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됐고 ▲북미방사선학회 내 3D프린팅 분과학회에서는 4D시장암 가이드 및 폐 보형물 임플란트 제 작 아이디어가 상을 받기도 했다. ▲소아심장 수술 가이드(소 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는 선천성 심장기형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도입돼 14명 중 5명의 치료 방법을 바꾸기도 했다는 연 구가 미국심장학회 저널 「JACC: Cardiovascular Imaging」에 게 재됐으며 ▲대동맥 인공혈관 치환술 수술 가이드(심장혈관흉 부외과 김준범 교수팀) 연구는 미국 흉부외과학회 학술지에 두 차례 게재된 후 2면의 논평이 실릴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 감기약으로 고셔병 발작 증상 치료





브록솔 성분이 고 셔병의 신경학적 증상 치료에 효과

의학유전학센터

이범희 교수, 황수

진 임상전임강사

팀은 흔히 감기약

으로 사용되는 암

가 있다는 장기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셔병은 유전적 문제로 체내 세포에서 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라는 효소가 결핍 돼 특정 당지질이 축적되는 희귀질환이다. 치료제가 개발됐지 만 신경학적 증상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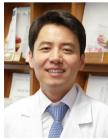
연구팀은 2013년부터 약 10년 동안 고셔병 환자 중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환자 6명을 대상으로 기존 표준 치료법인 효소대 체요법과 암브록솔 치료법을 병용했다. 그 결과 초기 환자들의

발작 빈도는 2주에 5번 정도였는데 병용 치료 후 5년 후부터 약 2번, 9년 후부터는 발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된 환자들도 2주에 약 10번 발생 하던 발작 증상이 치료 10년 후에는 5번 정도로 크게 줄었다. 또한 연구팀은 화자들의 고셔병 삶의 질 점수(mSST)를 측정했 는데, 신경학적 증상 발생 초기 환자들은 평균 7.5점에서 병용 치료 10년 후 6점으로 낮아졌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된 환 자들은 평균 17점에서 11점으로 낮아졌다. 고셔병 삶의 질 점수 는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암브록솔 성분의 약이 신경학적 증상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있지만 장기 연구 결과는 그동안 없었다. 이범희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 5% 정도가 고셔병 발생 유전자 보 인자로 알려진 만큼 고셔병, 파킨슨병의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혈액학회지 에 최근 게재됐다.

## 연예인 공황장애 공개하니 일반인 신규 진단율 높아져





조민우 교수

연예인들이 정신 건강의학과 치료 를 받고 있다고 대 중에게 공개한 사 건들이 공황장애 의 신규 진단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 을 했다는 연구 결

과가 최근 발표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팀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4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한민국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공황장애를 새롭게 지단받은 화자의 비율인 신규 진단율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연예인의 공황장애 투병 고백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유 명 배우가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공개 한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1년 10월, 2012년 1월 에도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공황장애 투병 사실을 고백해 많 은 관심이 집중됐다.

분석 결과 연예인이 공황장애 투병 사실을 고백하기 전 월평 균 공황장애 신규 진단율은 10만 명당 5.4명 수준이었던 반 면, 고백 직후인 2010년 12월에는 10만 명당 6.5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그 이후로도 2011년 1~2월 8.4명, 3월 18.0명, 4월 26.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연도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연평균 공황장애 신규 진단율이 10만 명당 65명 수준이었던 반면, 연 예인의 공황장애 투병 사실이 발표된 이후 신규 진단율이 꾸 준히 증가해 2021년 10만 명당 610명을 기록했다. 17년 전과 비교해 약 9.4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최 근 게재됐다.

NEWS Q

### UAE아산소화기병원 착공식



UAE아산소화기병원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인 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 착공식이 7월 10일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 열렸다. 착공식에는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최종우 해외병원사업단장,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 아와드 알케트비 두바이 보건청장, 나지브 파이야드스코프 인베스트먼트 CEO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연면적 2만 1,150m²,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중환자실 포함 65개 병상과 4개 수술실을 갖추게 된다. 우리 병원이 진료와 교육 등전 반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위암과 대장암 등소화기암,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 수술, 소아소화기질환치료 등고난도 치료를통해 중동국가 중증환자들의 삶의 질을높이고 현지 의료 수준을향상시킬 것으로기대된다.

### 아산두경부포럼



7월 6일 열린 제3회 아산두경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회 아산두경부포럼이 7월 6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 후 관리 ▲ 두경부 로봇수술의 숙련의가 되는 방법 ▲갑상선 로봇 수술 접근법의 종류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으로 참석한 이비인후과 최승호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는 두경부암 로봇 수술의 셋업 방법 등 상세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 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두경부외과와 관련된 최신지 견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약물안전 캠페인



약물이상반응 우수 보고부서·직원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약물감시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약물안전캠페인을 6월 21일부터 10일간 진행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교육자료 게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홍보부스 운영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물이상반응을 적극적으로 보고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개인부문** 영상의학팀 김연재 주임, 암병원간호2팀 김지수 주임, 건진운영팀 김지효 주임, 약제팀 이누리 주임, 암병원간호2팀 이민선 주임, 응급간호팀 이 송하 대리, 신경과 장현정 진료전임강사

단체부문 수술간호팀 신관마취회복 유닛, 영상의학팀, 외래간호팀 외래5 유닛 내분비내과외래, 응급간호팀 BER 유닛 (이름, 부서 가나다 순)

2024. 7. 15 Vol.729

##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에 최선



7월 5일 76병동에서 의료폐기물 저감 및 안전관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병원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에너지 절감, 사회 공헌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병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오염물질 3,415톤, 오폐 수 3,570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각각 15.6%, 14.4% 감소한 수치다. 의료폐기물은 12.9톤을 배출했는데 이는 작년 17.9톤보다 27.9% 감축한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 서 방문 교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 병원은 올해 말까지 기존 형광램프를 저전력소모형 LED 램프로 교체해 연간 약 357MWh의 전력을 절감할 예정이 다. 도시 가스를 이용해 온수를 공급하던 기존 열교환기를 물 분자 마찰열을 이용해 가열하는 '이온 히팅시스템'으로 교체해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83,582m³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우간다와 키르기스스탄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시행했으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봉사는 26회 진행했다. 부서단위의 봉사활동은 상반기에 총 76회 시행됐으며 24개 부서 6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지역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탰다.

## 아카데미운영팀 외부오픈과정 확대



아카데미운영팀 윤초롱 대리(오른쪽 두 번째)가 호산대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퓨전 펌프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카데미운영팀이 외부 의료기관과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오픈과정을 연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대구보건대, 조선간호대, 청주대 간호학과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0여개의 의료기관과 간호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간호직무교육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환자경험관리 ▲마음경영 등 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이뤄지며, 프로그램 확인 및 신청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할 수 있다.

## 선천성 횡격막 탈장 코호트 세미나

제1회 선천성 횡격막 탈장 코호트 세미나가 6월 29일 동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선천성 횡격막 탈장의 주산기 진단 방법과 에크모'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선천성 횡격막 탈장 코호트(K-CDH) 연구 참여자 및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소아외과 의료진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CDH의 태아 영상: 진단 기준 및 예후 예측 ▲ CDH의 산후 영상 ▲신생아·소아 환자의 에크모 치료의 원칙 ▲에크모 치료 중인 CDH 환아의 심폐기능 지원 ▲에크모 치료 중인 신생아의 항응고 요법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NEWS** 



#### 임종진 관리부원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임종진 관리부원장이 7월 11일 웨 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임 관리부원장은 직원들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근무 제도 개선과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 상을 받았다. 사진은 임종진 관리부원장이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이계화 교수 비트의료정보학술상



정보의학과 이계화 교수가 6월 19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비 트의료정보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비트컴퓨 터와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의료정보 분야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이 교수는 의료빅데이터, 중개생물정보학, 임 상정보학, 개인유전체분석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 보직임명

임 : 암환자라이프케어센터소장 - 이상 1명, 2024. 6. 15부.

대장항문외과 임상부교수 김민현 임:대장항문외과 의국장

- 이상 1명, 2024. 7. 1부.

#### 김성훈 부교수, 김동규 연구원 최우수상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부교 수와 김동규 연구원이 6월 21 일부터 3일간 서울성모병원 원에서 열린 코리아 임상 데이 김성훈부교수 김동규연구원 터톤(Korea Clinical Datathon

2024)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 부교수와 김 연구원은 '미국 과 한국의 ICD 진단 코드 편향 분석 및 EMR 기반 ICD 진단 코 드 예측'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 권지훈 부교수 IP스타과학자 과제 선정



융합의학과 권지훈 부교수가 최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IP스타과학자 지원형)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권 부교수는 '심 혈관 의료영상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 고도화 및 실용화'를 주제로 한 연구를 2025년 12월까지 진행하며 우수 IP 창출, 시제품 제작·검증, 기술고도화 컨설팅, 상용화 타당성 검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직원 건강검진 실시

직원 건강검진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검진 시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며 야 간작업 및 유해인자 취급 직원은 추가 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검 진, 만 40세 이상 대상자는 종양표지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AMIS 3.0 '직원건강관리 예약'에서 일정을 등록할 수 있다

## 이달의 후원자

#### 개인 및 단체

####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재현	10,000,000원
박찬우	100,000,000원
배여정	10,000,000원
이신재	100,000,000원
(주)현대이지웰	90,000,000원
최성길	100,000,000원

#### 불우환자 지원

김선미	5,000,000원
석병선	100,000원
송화재단	10,000,000원

#### 직원 및 직원가족

####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박정미	1,800,000원
양태원	200,000원
이전호	1,000,000원

#### 불우환자 지원

100,000원

- 2024년 6월 30일 기준, 가나다 순

※ 문의 :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AMC 광장

## 환자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로



권혁수 약물감시센터소장

몇 년 전,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투약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 으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은 환자가 있었다.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이 병력 을 의료진에게 말했고 외래 간호사는 내용을 잘 기록해 두 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환자가 패혈증이 동반된 심각한 폐 렴으로 우리 병원 응급실로 왔다. 세팔로스포린이 처방될 뻔한 순간, 다행히 우리 병원 EMR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 덕 분에 다른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무사히 치료를 받 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했다. 이는 작은 보고 하나가 환자 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다. 외래 간호 사가 바쁜 업무 중에도 소화기 증상과 무관한 약물이상반응 을 병력에서 찾아내 1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을 들여 EMR에 보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간호사의 세심하고 주의 깊은 행동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결 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란 의약품의 이상 사례나 안 전성에 관한 문제를 탐지하고 평가 및 해석. 예방하는 일 련의 과학적 활동을 말한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약물감시센터는 2004년 원내 위원회로 출범해 2009년 식약처로부터 동서울지역 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 받았다. 약물 부작용 예방과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 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평가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원 EMR 시스템과 연계해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다양한 상황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과 환자를 대 상으로 약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약물 안전 사용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 활동은 약물 부작용 예방과 관리의 중요한 기 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구축된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고 도화하는 데 약물감시센터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우리 병원 모든 직원들의 협력과 헌신이 있어야만 신속한 약물 부작용 보고는 물론 안정적인 대응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에게 환자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 목표가 되어 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 보 호는 물론 우리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그러하듯 약물감시센터도 항상 환자 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듯 우리의 노력은 한 생명 을 구하고 한 가정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 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약물이상반응의 중요 성을 항상 유념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작은 내용도 보고하 기를 주저하지 말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AMC 리얼스토리

## 끝에서 바라본 시작

스물두 살 청년이 된 연호는 3년 만에 어린이병동을 찾았다. 백혈병 환자에서 에서이 작가이자 어린이병동의 기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연호다!" 연호를 먼저 알아본 의료진의 들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가슴에 뚫린 관으로 독한 항암제를 맞으며 처절했던 연호의 투병 시점을 기억하는 이들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나를 안심시킨 나의 환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임호준 교수는 연호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건넨 편지를 갖고 있었다. 2021년 7월이었다. 연습장을 뜯은 종이는 영락없는 고교생의 흔적이었지만, 정자체로 꾹꾹 눌러쓴 내용만큼은 생사를 마주한 환자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법조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바닥이던 성적을 전교 1등까지 만들었지만 백혈병 소견과 함께 제 꿈은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암 치료와 관해 유도에도 호중구 수치는 오르지 않았다. 원인을 찾는 검사가 계속됐고 그사이 몇 번의 감염 위험도 있었다. 모두가 꺼리는 골수 검사를 다시 시도했던 날 병실로 찾아온 임 교수에게 연호는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교수님, 곧 제 생일인데 골수 검사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웃었다. 이토록 긍정적인 환자라니, 임 교수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연호에겐 7번 염색체가하나밖에 없었고 암이 빨리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다행히 여동생과 조직적합성이 맞아 2021년 11월 18일 조혈모세포이식을 서둘러 진행했다.

"앞으로 재발할 우려는 없어 보이네." 이식 후 3년. 임 교수가 해줄 이야기는 점점 줄어간다. 이제 연호의 이야 기를 들을 차례다. 오래전 편지 말미에 '완치가 된 이후에는 세상에 힘든 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임 교수는 여전히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다.

아는서 단단해진 나이 아들 "저 녀석 때문에 눈물이 늘었어요." 한 걸음 떨어져 걷던 연호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에 금세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 자신만만하게 살아오다 큰코다쳤다면서. 하루아침에 암환자가 된 아들이 자포자기할까 봐 "연호야, 아빠 돈 많아~ 어떻게든 치료해 줄 테니 너만 생각해!"라고 허세를 부린 적도 있다고 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연호는 계속 토하고 발진으로 시달렸다. 일순간 입술이 파래지고 몸을 사시나무 떨 듯하다가 해열제를 맞으면 금세 땀에 흠뻑 젖어 이불을 모두 걷어내야 했다. 2~3시간 간격으로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아버지는 제발 이 시기를 잘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들의 손과 발을 주무르고 민 머리를 쓸어주었다. 간지러워 잠들지 못하던 새벽녘에 서유리 간호사가 찾아와 얼음물에 적신 수건으로 연호의 몸을 닦아주던 모습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했다. 모든 의료진의 정성에 연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주어진 상황을 견뎌 나갔다.

하필 수능 당일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진행됐다. 친구들이 미래를 꿈꾸며 시험을 치를 때, 연호는 세상과 차 단된 무균실에서 생사의 희망과 불안을 짊어지고 있었다. '나라도 이 순간을 기억해 줘야지'라며 아버지는 2024. 7. 15 Vol.729

연호의 사진을 찍어 두었다. 평소 데면데면하던 아들을 병원에 와서야 자세히 본 듯했다. "앞으로 연호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지 저는 믿고 응원할 생각이에요. 병원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는 걸 아니까요."

## 함께뿌내린 워들의성장

입원 시절, 연호는 햇살나무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강성한 부교수에게 호언장담했다. "제가 경제활동 을 하게 된다면 이곳에 꼭 기부할게요." 햇살나무는 투병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겨낸들 재발하진 않 을까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연호가 찾던 곳이 었다. 퇴원한 뒤 투병기를 쓰면서 연호는 알게 됐다. '이 글은 내게 손 내밀던 사람들이 주인공이었구나!' 지난해 말 연호의 책이

나왔고 모든 인세를 햇살나무에 기부했다. 지갑 안의 종이 조각으로 있기보다 생일을 맞이한 환아들의 케이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강 부교수와 어린이병원 이은옥 대리는 연호가 기부자 이상의 의미라고 했다. "환아들에게 매 순간 살아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햇살나무를 열었을 때 마침 연호를 만났어. 너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게 됐지. 이제는 네 이야기가 이곳 환아들에게 큰힘이 되는 거 알아?" 연호는 또다시 약속했다.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햇살나무 봉사자로 꼭 돌아올게요!"

이 에 시작이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병상에서 죽음을 마주하면서 연호는 되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알게 됐다. 그래서 퇴원한 뒤 대학 입시도 잠시 미뤘다. 끝에서 바라본 시작이라는 책을 쓰고, 몽골을 여행하고, 국정감사장에 나가 환자 대표로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이야기했다. 자기 인생에 더 다정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 하루를 채워나갔다. "백혈병 환자라는 것에 스스로 위축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픔 없는 장연호는 지금의 장연호가 아닐 거예요. 인생이 멈췄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시작된 제 인생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투병을 통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배웠다. 최소한 10%의 여유는 자신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하루에 한 번은 바깥바람을 쐬는 것, 하루에 한 끼는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것,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몸이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에 가는 일이다. 일 때문에 나를 미루지 않는 게 여유다. 그 10%가 사람을 살린다. 노력한 것에 비해 대가가 적어 속상할 때, 실패로 좌절감을 맛볼 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10%의 틈이 삶을 구원한다. '끝에서 바라본 시작, 중에서

####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헬스에디터 2024. 7. 15 Vol.729

## 고관절에서 나는 뚝뚝 소리,









#### 갑자기 들려오는 '뚝뚝' 소리

평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퇴근 후에는 달리기나 자전거를 즐기는 A씨.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날 갑자기 움직일 때마다 고관절 부위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들린다. 어떤 날은 고관절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을 느낄 때도 있다. 막상 병원에 가 보자니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일 진료를 한번 받아 봐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또 갑자기 소리도 나지 않고 통증도 없다. '내 고관절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 고관절이 망가지면 오래 못 산다고 하던데…'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고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증상은 최근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젊고 활동적인 인구에서 증가하고 있다. '발음성 고관절증'이라 불리는 이 질환은 어떤 병이고, 언제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과도한 운동이 인대·장요근에 영향

'발음성 고관절증'이라는 병명이 다소 생소할 수 있겠으나 40년 이상 많은 문헌을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진단명이다. 'Dancer's Hip' 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고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젊은 연령대에서 통증 없는 발음성 고관절증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10%나 된다고 한다. 운동선수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복무중인 군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발음성 고관절증의 원인은 고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관절을 움직이는 고관절 주위의 인대가 주된 원인이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허벅지 바깥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빠지는 느낌의 '외부형 발음성 고관절증'과 고관절 앞쪽 즉 서혜부 근처에서 소리가 나거나 빠지는 느낌이 나는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발음성 고관절증은 외부형이다. 고관절의 외측, 즉 엉덩이 옆에 손을 댔을 때 만져지는 툭 튀어나온 뼈를 '대전자 돌기'라고 하는

데 이 뼈와 뼈를 덮고 있는 두꺼운 인대 조직인 '장경인대'가 마찰을 일으 키며 소리가 나는 것이다. 장경인대는 우리가 고관절을 굽히고 펴는데 가 장 핵심이 되는 인대 중 하나다. 이 인대를 과도하게 자주 사용하거나 갑자 기 무리한 관절 사용이 반복되면 인대가 붓기도 하고 손의 굳은살이 배기 듯 차츰 두꺼워지기도 한다. 인대가 두꺼워진 상태에서 특정 동작을 할 때 골반 쪽의 뼈와 마찰하면서 인대와 뼈에서 뚝뚝 소리와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증은 고관절 안쪽 서혜부 골반부위에서 발생하며 외부형보다 드물게 발생한다.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복잡한 형태의 근육인 장요근이 골반 내측에서 외측으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골반 뼈 전방부의 정상적인 뼈 돌기와 마찰하며 소리와 통증을 유발한다. 이 역시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장요근이 고관절의 과도한 굴곡 운동이나 반복운동으로 인해 두꺼워져서 생기며 외부형과 같이 힘줄과 뼈가 걸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관절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드럽게움직이지 못하고 뼈와 힘줄이 걸리면서 뚝뚝 소리가 나고 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 휴식·스트레칭으로 발음성 고관절증 예방해야

앞서 설명한 두 종류의 발음성 고관절증 모두 증상 발생 기간이 길지 않다면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만으로도 대부분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발음성 고관절증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형 발음성 고관절증은 무리한 자세를 취하는 운동을 제한해 뼈와 인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통증 조절을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70~80% 이상은 저절로 사라진다. 하지만 관절의 구조적 이상이 동반되거나 육안상으로도 인대의 이상 움직임이 관찰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한다.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증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활습관은 없는지 먼저 체크해 이를 교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선천적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인한 이상이나 고관절 인공관절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라면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필요 시 수술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업무나 활동 중 반복적으로 고관절에 무리를 주거나 고관절 주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중간중간에 기지개를 켜거나 고관절을 펴 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발음성 고관절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 평소에 관절과 인대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즐긴다면 더 오랫동안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사람 & 이야기

## 유럽서 알린 소아 재활치료의 우수성

우리 병원 의료진이 최근 벨기에에서 개최된 유럽아동장애학회 학술대회에서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 환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다학제적 접근법'을 주제로 세션을 주관했다. 전 세계적으로 치료 사례가 많지 않은 분야 여서 세계 각국에서 온 재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소아호흡재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유아 발달평가, 조산아 보호자 대상 교육의 효과 등을 주제로 구연 및 포스터 발표도 진행했다. 발표를 함께 준비한 재활의학과 고은재 조교수, 재활의학팀 박창은·이의균 주임, 김수민 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실〉



5월 30일 유럽아동장애학회에서 세션을 주관한 뒤 기념촬영. (왼쪽부터) 박창은 주임, 고은재 조교수, 김수민 연구원, 이의균 주임.

#### 이번 세션을 맡게 된 계기는

우리 병원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내과적, 외과적 치료가 끝난 후까지 물리치료, 작업치료, 연하치료, 근골격재활치료, 심장재활치료 등을 포함한 환자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활치료 사례와 연구 성과를 유럽 학회에서 발표 하는 것이 우리 병원 의료진과 해외 재활 전문가 모두에게 의미 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세션을 준비하게 됐다. (고은재)

####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치열하게 준비했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를 대표해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높은 수준의 발표를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1시간 동안 자유형식으로 발표하는 세션이었는데 가장 부담이 된 건 역시 영어였다. 원어민 선생님과함께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수차례 리허설을 해보며 어색한 영어발음과 억양을 교정했다. (박창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재활치료는 대부분 의료진에게 생 있기를 희망한다. (박창은)

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동료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실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 학회 당일까지 자료 보완과 발표 리허설을 거듭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의균)

### 참석자들의 반응은

우리 의료진이 맡은 세션은 이른 아침에 진행됐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를 들었으며, 심장재활평가 및 치료에 대한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다른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우리가 발표한 내용이 실제 재활치료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 큰 보람을 느꼈고, 세계 무대를 선도하는 우리 병원의 진료와 연구 수준이 자랑스러웠다. (김수민)

### 발표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우리 병원 재활의학과는 여러 직군이 함께 모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진료과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고의 치료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협업 문화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고 우리 병원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동료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고은재)

새로운 도전을 하며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열심히 준비해 잘 끝마치고 나니 한 단계 성장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 뿌듯 하다. 여러분도 동료들과 함께 도전에 나서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창우) AMC 루키

##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따뜻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81병동에서 림프종, 다발골수종 환자들을 간호하며 항암 제 투약, 부작용 사정 및 중재, 암성 통증 조절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조혈모세포 채집과 이식, CAR-T 치료 등의 과정 전반에서 정확한 환자 사정과 적극적인 중재, 안전한 치료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병원간호2팀 이소영 사원

자신의 장점은 저는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더라도 '새로운

걸 하나 더 배웠다!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또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잘 느낀답니다. 우연히 마음에 드는 노래를 찾았을 때, 출근길 날씨가 좋을 때, 환자가 저를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할 때! 하루를 힘차게 보낼수 있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는 기면 상태의 말기암 환자를 간호한 적이 있습니다.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 불편한 곳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환자분은 눈을 번쩍 뜨고 "선생님은 참 분명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환자의 생각과 감정을 완벽히 이해할 순 없지만 반복되는 입원과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었을 텐데도 또렷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해 준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단순히 간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환자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역할까지 잘 해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일상은 근무 시간 내내 바쁘게 뛰어다닌 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잠들어 버리곤 했어요. 일과 일 상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입사 2년 차인 올해, 일과 구분되는 나만의 일상을 만들기 위해 '취미 만들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좋아하는 락 밴드 음악을 듣고 콘서트도 다니고, 밴드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싶어 베이스기타 레슨도 받기 시작했어요. 일을 마친 뒤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실력이 조금 더 늘면 직장인 밴드에 가입해 연주하고 싶습니다!(웃음)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간호사는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따뜻해야 한다"는 대학 시절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와 동료 의료진이 언제든 제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 냉철한 머리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근거 있는' 신뢰감을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sup>※ &#</sup>x27;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컬처 & 라이프

생명에 맞춤형이 따로 있을까



진단검사의학팀 허정윤 사원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고등학생 시절 수행 평가를 위해 읽은 책인데, 당시에는 생명 윤리에 집중해 읽은 기억이 있다. 시간이 흘러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찾아보았다. 원작과 영화의 결말이 다른데, 영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인공 안나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언니 케이트를 치료하기 위 해 유전자를 조작해 태어난 맞춤형 아기이다. 백혈구, 줄기세 포, 골수 등을 언니에게 기증해야 하는 운명에 안나는 점차 갈 등을 느낀다. 신장 기증까지 요구받자, 안나는 자신의 몸에 대 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고소하기로 한다. 안나의 결정 은 가족 내에서 갈등을 야기한다. 아빠 브라이언은 안나의 마 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엄마 사라는 케이트를 지나치게 사 랑한 나머지 안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케이트의 병세가 악화되 면서 의사는 더 이상 치료될 가망이 없다고 가족에게 전한다. 이에 안나에게 기증을 요구하는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엄마 사라는 안나가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 에 케이트가 있음을 알게 된다. 같은 병을 앓던 친구 테일러가 세상을 떠나면서 케이트는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은 채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가 자 신의 치료에 점점 더 집착하자 안나에게 고소를 부탁한 것이 다. 결국 안나가 재판에서 승소하고 케이트는 숨을 거둔다. 영 화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안나 가족이 케이트의 생일에 그 녀를 추억하기 위해 고향에 모이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처음 책을 읽을 당시에는 '유전자 조합으로 태어난 시험관 아 기'라는 소재 때문에 단순한 과학 소설로 여겼다. 그러나 영화 를 통해 인간의 갈등과 용서의 과정을 다룬 휴먼드라마의 면 모를 새롭게 볼 수 있었다. 맞춤형 아기라는 다소 파격적인 설 정보다는 가족의 갈등과 희생, 그에 뒤따르는 용서의 과정이 주목할 만한 요소였다. 안나의 희생은 많은 눈물과 공감을 불

현재 채혈실에서 근무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만난다. 함 께 온 환자 가족과도 마주칠 때가 많다. 가정 내에 질병을 앓 는 구성원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희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일 것이다. 가족마다 다양한 입장과 갈등도 있을 것이다. 이러 한 환자의 가족을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도 깊어 진다. '마이 시스터즈 키퍼'는 이때의 고민과 질문을 모두에게 던진다. 단호한 해답은 없겠지만 투병 중인 환자의 가족이라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이 시스터즈 키퍼

2024. 7. 15 Vol.729

##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 아카데미운영팀 김다혜 주임

'나의 취미생활 - 하늘을 나는 조종사' 코너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근무 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아주 특별하고 이색적인 취미를 즐기는 모습이 멋집니다!

#### 어린이병원간호팀 유진아 대리

신관 1층 어린이병원외래 앞에서 진행된 레고 전시 작품들을 잘 감상했습니다. 작품을 기부하신 분이 우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후원자라는 사실을 듣고 놀랐어요!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을 기증받게 된 환아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외래간호팀 외래8 유닛 김희경 대리

'웰컴 투 AMC'에 소개된 주드 압둘라힘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읽었어요. 쿠웨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랴 여러 의술을 경험하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수를 잘 마친 뒤 돌아가서 현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내과간호 팀 93 유닛 이송이 주임

'AMC 루키 - 언제나 제 몫을 다하는 노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다른 직종 직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은데, 이번 코너를 통해 노사협력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 외과간호2팀 정유진 주임

'감사우체통 -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코너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백혈병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우지민 선생님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저희 155병동에도 암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도 선생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SNS 돌보기 🔼

#### [건강이야기] 복부 대동맥류 치료법은?



출연: 혈관외과 권준교 부교수

복부의 대동맥이 정상일 때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상태를 복부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혈관은 통

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풀 어 올라 파열되기 직전까지 모르 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파열되 면 사망률이 30~50%에 이르는

무서운 복부 대동맥류. 원인은 무엇이며 증상과 검사 방 법, 예방법에 대해 혈관외과 권준교 부교수의 상세한 설 **미 / 소....** 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이야기] 비염 완치된 방법! 직접 보여드립니다.



출연: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

4월 1일자 병원보에도 소개됐던 1편 '코막힘, 콧물 비염 완치 방법' 영상이 '네이버 건강' 상반기 인기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영 상에서는 기존 영상 시청 후 댓글 을 통해 독자들이 질문한 내용 중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사용법, 생





<sup>※</sup>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